

科學大衆化의 先覺者 金容瓘

20년대에 發明學會 창설하고
「科學朝鮮」誌 창간



朴 星 來
(韓國의국어大교수·科學史)

과학자만 있으면 과학은 얼마든지 발달할 것 같고, 기술자만 많으면 기술 수준도 높아 질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아무리 많고 그들의 연구와 개발이 아무리 잘 뒷받침된다 해도 꼭 그것만으로는 과학기술이 완전히 꽃피지는 못한다.

과학기술을 일반에게 보급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보다 많은 관심을 과학기술계에 끌어모으는 노력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 노력은 과학기술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크게 높아져 있지만 그 대衆化에 대해서는 政府 차원의

관심이 전혀 없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거창한 예산이 쏟아져 내리고 있지만 그 대衆化를 위한 돈은 소꿉장난 수준에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먼 안목으로 볼 때 한국과학의 장래를 위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半세기 전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똑똑했는가 감탄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반세기 전인 1930년대에 이 땅에는 과학자나 기술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눈뜨고 이를 널리 보급하려는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 때 이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인 <근세 한국 과학계의 동

키호테>라는 金容瓘(1897~1967)이었다. 그는 1920년대에 이미 發明學會를 만들어 과학보급에 나섰고, 1930년대에는 科學知識普及會를 만들어 같은 일에 앞장섰으며, 이를 위해 《科學朝鮮》이란 종합과학 잡지를 창간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학의 날>을 정한 것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金容瓘은 1897년 3월 21일 지금의 서울 昌信洞에서 넉넉한 상인 金丙洙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8년 京城工業專門學校의 요업과를 졸업한 그는 이어 東京工業大學의 요업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는 이듬해 3.1운동과 더불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부산에서 朝鮮硬質陶器株

式會社의 기수로 취직 했다가 이듬해에는 다시 서울의 中央工業試驗所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왜 청년시절에 한 자리에 안정하지 못하고 자꾸 방황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여하튼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金容瓘은 1922년 5월 朝鮮工藝學院이란 것을 차려 독립해 버렸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는 부산의 직장에서서 일본인 조수가 그를 경멸했다해서 서울로 떠났고, 中央工業試驗所에서는 일본인 상사와 말다툼 끝에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대중화 기관으로 그가 發明學會를 창설하게 된 것은 이때 부터의 일이었다. 그의 첫 시도는 실패였다. 기본 자산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京城工業 동창과 그밖의 인사들을 모아 1924년 10월 1일 드디어 發明學會를 창립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비는 전임이사인 金容瓘이 대어야했던 기관이었고 그는 집을 팔아 그

工業的 知識의 普及과 發明的 精神의 향상을 목적으로 「發明學會」설립 「科學朝鮮」 통해 “科學의 民衆化” “科學의 普及기관을 설치하라”고 역설

경비를 떠맡았다. 아직 발명에 관심있는 사람이 없던 형편이어서 그는 반년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이렇게 사라져 간 發明學會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32년의 일이었다. 8년 전에 시작된 기구가 그대로 다시 소생한 것으

로써 發明學會의 規約은 옛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 규약에 있는 것처럼 발명학회의 목적은 “工業的 智識의 普及과 發明的 精神의 向上”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경리부, 출판부, 법리부, 영업부, 광무부가 있었는데 특히 출원 등을 다루

1934년 찰스 다윈의 忌日을 <과학데이>로 정해 첫번째 기념행사는 1주일동안 전국적으로 거행

게된 法理部가 있는가 하면 공산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營業部와 과학서적의 출판을 맡은 出版部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發明學會는 꼭 과학기술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되직한 사업이라면 닥치는대로 손을 대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예를들면 發明學會出版部에서 낸 책들을 보면 철학·역사·문학 등이 사전이나 과학기술과 함께 포함돼 있다.

1933년 창간된 《科學朝鮮》은 바로 이런 출판경험을 바탕으로 發明學會가 시작한 야심적인 月刊 과학종합잡지였다. 이

아저 최근 外大 史學研究所에 의해 影印本으로 출판되었다.

金容瓘은 30년대의 《科學朝鮮》 발간에 주역을 맡고 있었다. 발명학회의 전임이사로서 그는 이 잡지의 정식 發行人으로 기록됐을 뿐 아니라 매호마다 독자의 질의응답을 담당하

고 있었다. 또 매호마다 두 세 가지 기사를 쓰고 있는 등 활동이 대단했다. 여러가지 과학에 대한 일반적 계몽기사 이외에도 그는 “科學의 民衆化” “科學지식 보급에 관하여” “과학의 보급기관을 설치하라” 등 과학 대중화 운동에 관한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科學의 大衆化를 주도하던 金容瓘은 이를 위해 아주 특이한 운동에도 손을 대었으니 그것이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의 날> 제정이었다. 요즘 우리는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문을 열었다 해서 그날을 기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33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과학의 날>을 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성대한 기념행사를 벌였던 것이었다.

金容瓘은 그 날을 <科學 데이>라 불렀다. 그리고 날자도 4월 21일 보다 이틀이 빠른 4월 19일이었다. 당대에 가장 유

명한 과학자 찰스·다윈의 忌日을 고른 것이었다. 1934년의 첫 〈科學 데이〉에는 그전후 1주일 동안 전국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활동사진회, 강연회, 과학관·박물관·공장의 견학, 라디오 방송, 그리고 좌담회 등이 열렸으며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등은 몇 번씩이나 이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해주었다. 당시의 대표적 사업가·법조인·학자·문필가·언론인등 한국 사람이면 모두 이에 동조했다. 그것은 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科學 데이〉가 크게 성공하자 金容瓏은 더욱 용기를 얻어 그 운동을 장기적인 모임으로 묶어보려했다. 1934년 6월 그는 1백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科學智識普及會를 발족시킨 것이다. 7월 5일 이 모임은 회장에 尹致昊, 부회장에 李仁을 추대하였고, 역시 주역은 金容瓏이 맡았다. 普及會는 《科學朝鮮》을 인수하고 이듬해의 〈科

의 값이다. 지금으로 치면 잡지 한권을 2,000원으로 환산해 당시의 300원이란 대강 지금의 3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함직하다.

1935년 4월 19일 〈科學 데이〉는 전보다 훨씬 성대하게 치러졌다. ‘科學의 노래’가 金

金岸曙 작사, 洪蘭波 작곡으로 “科學의 노래” 만들어 당시 모든 자동차를 동원 악대가 연주 시내행진

岸曙 작사 洪蘭波 작곡으로 만들어졌다. 서울 시내에서는 당시의 거의 모든 자동차가 동원되다시피하여 54대의 자동차에 깃발을 나부끼며 악대가 ‘科學의 노래’를 연주하며 시내행진이 벌어졌다. 平壤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나름대로 성대한 행사가 벌어졌고, 강연과 전시회 등이 열렸다. 發明學會와 科學智識普及會의 상임이사를 함께 맡고 있던 金容瓏은 이 모든 행사에 주역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발명학회와 보급회의 운동도, 《科學朝鮮》도, 그리고

않다. 그러나 1940년 《科學朝鮮》이 復刊되었을 때 그는 黃海道 載寧의 明新中 교사라는 직함으로 이 잡지에 “독가스에 대하여”란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잡지에는 또한 金應中의 “보석 이야기”도 실려있는데 그의 장남이었던 것 같다.

30년대 한국 과학대중화의 선구자였던 金容瓏은 해방 이후 다시 그의 전공인 요업분야에 손을 댔다. 그는 해방직후 서울工業의 요업과 교사, 특허국 심사관, 發明協會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또 11개의 특허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왜 그가 科學大衆化에서는 손을 떼고 있었던가? 30년대에 크게 활약했던 金容瓏은 40년대 이후에는 거의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

18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던 그는 1967년 9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아마 腸癌이었던 것 같다고 그의 아들 金裕中씨는 회고하고 있다. 그의 막내인 金裕中(48)씨는 현재 영등포여고의 생물교사이며 교무주임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슬로건 내걸고

1934년 6월 100명 이상 서명받아 科學智識普及會 발족

學 데이〉 행사도 맡기로 결정되었다.

이런 사업을 위해 회장 尹致昊와 부회장 李仁은 각각 300원을 냈고, 朴吉龍이 200원등 많은 기부금이 모여졌다. 당시 《科學朝鮮》 한 권이 20전이었으니 300원이면 잡지 1,500권

〈科學 데이〉도 日帝의 눈에는 이상한 민족운동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1936년 이후 이런 일들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졌고, 그후 언젠가 金容瓏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가 언제 지방으로 落鄉했는지는 분명치

하루 앞선 과학기술

백년 앞선 국가발전